

신현희 피아노 독주회

L. v. Beethoven

F. B. Mendelssohn

C. Debussy

F. Liszt

Shin Hyun Hui
Piano Recital

2013. 10. 8 | 화 | 7:30pm

금정문화회관 소극장

주최 | 예술기획

후원 | 한국문화재단 후원회 | 부산광역시 | 부산문화재단 | 고신대학교 교직원학과 동문회 | K.P.S. 독우회

문의 | 0505-700-9798

본 공연은 2013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PROGRAM NOTE



L. v. Beethoven
(1770-1827)

Sonate op.110 A^b-dur no.31

1. Moderato cantabile molto espressivo
2. Allegro molto
3. Adagio ma non troppo-Fuga/Allegro ma non troppo

베르디가 병마와 싸우고 있던 1821년의 작곡된 피아노 소나타 op.110은 총 32곡의 피아노 소나타 중 31번째 곡으로 연주자의 풍부한 감성과 표현력을 요구한다. 총 3악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베토벤의 후기 작품 특성대로 마지막 악장에 커다란 무지개가 신겨 있다. 변형된 소나타 일렉트로 입석의 첫 악장은 보통 비올라의 악장이며 베토벤이 연주자에게 아주 표현력에 풍부하게 노래하듯이 연주 할 것을 요구한 다. 비올라 스케르초의 두 번째 악장은 일반적인 느린 2박장의 곡이 아니라 빠른 템포이며, 동상적인 3박자가 아닌 2박자의 스케르초 악장으로 베토벤의 자유로운 형식을 보여준다. 베토벤은 이 악장처럼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연속음악 두 곡을 사용하여 가깝고 밝은 분위기와 함께 복잡한 리듬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작곡자의 위풍와 거법지 않은 유머러스함을 보여준다. 두 개의 느린 화성의 아리오조와 두 개의 빠른 다성적인 무가를 보여주는 마지막 악장은 처음으로 노채우는 레세나티보를 사용하여 더욱 풍부한 감성을 보여준다. 베토벤은 제 1악장의 주제를 다시 3악장 무가에 사용하면서 전체의 곡이 하나로 연결되도록 유기적인 작곡을 하였으며, 넓은 음역대의 사용과 풍부한 음향들로 그가 남긴 주위를 통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F. B. Mendelssohn
(1809-1847)

Fantasia fis-Moll (Sonate écossaise) für Klavier

1. Con moto agitato
2. Allegro con moto
3. Presto

1827년에 작곡된 멘델스존의 Fantasy Op.29은 당시의 'Scottish' 소나타로 불렸다. 멘델스존은 이 때 처음으로 열연방 제도를 방문했으며 아일랜드 노래에 기초한 편곡지를 작곡한 것이다. 1833년 처음 출판된 이 곡은 영국에서 그를 찾아 온 Ignaz Moscheles에게 헌정되었다. 첫 악장은 빠른 부분과 느린 부분이 교대로 나타나며 느린 부분은 민요에 기초를 두었다. 세 개의 악장은 점차적으로 빨라지며 세 악장이 휴지 없이 지속적으로 연주된다. 이 곡은 민타지 정조를 기어올라 토카타와 같은 곡으로부터 소나타의 형태임을 보여주는 곡으로 전통적인 작법이라 하겠다. 멘델스존의 'Sonata quasi una fantasia Op.27'과 유사성을 가지는데 두 곡 모두 조성이 F sharp minor에서 A 장조로 그리고 다시 F sharp minor로 움직이고 마지막 finale는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되어 있다.



C. Debussy
(1862-1918)

Images I (영상 1집)

1. Reflets dans l'eau (물에 비친 그림자)
2. Hommage à Rameau (라모유 찬양하며)
3. Mouvement (움직임)

드뷔시는 1909년과 19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영상 제 1/2 집은 작곡했다. 2년만에 작곡한 (변화무쌍 피아노)의 새로운 모험만을 명구하고 인상주의적인 피아노 주법을 확립하게 된 드뷔시는 영상1집의 작곡 직전에 과할 죽음의 (사대)를 완성하여 독창적인 감지를 재확인했다. 사상이나 정감을 있는 그대로, 그 분위기를 바탕으로 표현하려는 통칭 '인상주의적인 수법'은 (영상) 제 1/2 집의 여섯 곡에 있어서도 강조되고 있다.

제 1집

1. 물에 비친 그림자 섬세한 이브레지오가 빛-그림자의 이미지로 부각되어 시각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곡, 전체적으로 빠른 템포는 아니지만 가볍고 나뉠듯 한 움직임이 느낄 수 있다.
2. 라모를 찬양하며 18세기 프랑스의 대 작곡가이자 음악 이론가인 장 필립 라모에 대한 존경이 드러나, 민중적이고 친숙하다. 라모의 거법지 않은 음악이 군더 군더 돌아간다.
3. 움직임 움직임이라는 추상적인 감각을 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리듬의 반복을 통해 운동과 힘, 전진감 느끼게 하여 활기찬, 아주 명랑한 곡이다. 차분한 가라장은 분위기를 슬그머니 고조시킨다.



F. Liszt
(1811-1886)

2 Légendes 中 no.2 (2개의 전설 중 2번)

St. François de Paule marchant sur les flots (클라우스 걷는 파올라의 성 프란시스코)

1850년 50세의 리스트는 사랑에는 어린과의 결혼을 위한 그 동안의 오랜 노력이 결국 무산되자 깊은 뜻을 입고 교회에 귀하여 성직자가 된다. 2곡으로 이루어진 전설은 그의 신앙심이 깊어지기 시작할 때 작곡되어졌으며 오늘날 연주되는 작품은 제2곡 '클라우스 걷는 성 프란시스코'이다. 성 프란시스코는 해를 한순간에 들고 다른 손을 높이 치켜들 때 파도 위를 걷는 모습을 묘사적으로 표현한 직공으로서 신앙심이 의 한 길잡이로서 성 프란시스코의 위대성을 리스도 특유의 시적 감성으로 웅변하고 있는 작품이다.

P/R/O/F/I/L/E

Pianist. **신 현 희** (Shin,Hyun-Hui)

- 고신대학교 예술대학 교회음악과 피아노전공 졸업
- 독일 Aachen(아헨) 국립음대 졸업(Diplom 획득)
- 네덜란드 Maastricht(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 졸업(Diplom 획득)
- Kammermusikpraxis Verdi-Quartett 수료 및 연주
- Internationaler Meisterkurs 수료 및 연주
- 고신대학교 신춘음악회 및 정기연주회 출연
- 제5회 한국음악협회 신인음악회 출연
- 4회 독주회
- 고신대학교 예술대학 기악과 교수음악회, 독우회, 경남듀오협회, 부산음악협회, K.P.S 정기연주회 및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중국에서 solo와 앙상블, 반주 등 다수연주
- 신라대학교, 청신대학 외래교수 역임
- 고신대학교 예술대학 기악과 초빙교수 역임

현 |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동아대학교 음악과 외래교수
브니엘예고 출강



P/R/O/G/R/A/M

L. v. Beethoven
(1770-1827)

Sonate op.110 A^b-dur no.31

1. *Moderato cantabile molto espressivo*
2. *Allegro molto*
3. *Adagio ma non troppo-Fuga(Allegro ma non troppo)*
 - *Listesso tempo di Arioso*
 - *Listesso tempo della Fuga poi a poi di nuovo vivente*

F. B. Mendelssohn
(1809-1847)

Fantasie fis-Moll (Sonate écossaise) für Klavier

1. *Con moto agitato*
2. *Allegro con moto*
3. *Presto*

Pause

C. Debussy
(1862-1918)

Images I

1. *Reflets dans l'eau (물에 비친 그림자)*
2. *Hommage à Rameau (라모를 찬양하며)*
3. *Mouvement (움직임)*

F. Liszt
(1811-1886)

2 Légendes 中 no.2

St. François de Paule merchant sur les flots
(물위를 걷는 파올라의 성 프란시스코)